

기회균등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다사다난 했던 지난 계사년을 뒤로하고 다가오는 갑오년을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물심양면으로 월간 『考試界』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에는 어딜가나 경제사정이 1998년도의 IMF 시기보다 더 많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잡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월간 『考試界』와 같은 전문수험잡지는 독자층이 매우 한정되어 있고, 그 숫자도 매우 적은 편이어서 잡지 자체의 수익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시사물잡지나 오락물잡지에 비하여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전문수험잡지를 지난 60여년 동안 한호의 결호도 없이 발행하여 왔다는 점은,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축하받고 격려받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4학년도 로스쿨 입학전형의 로스쿨 합격자들이 여러 로스쿨에서 속속 발표되고 있는 이때에, 한편에서는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지가 6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아직도 로스쿨 제도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입학전형상의 공정성문제입니다. 항목별 실질반영률이 공개되지 않고 면접이나 스펙, 경력 등을 주요 요소로 면접관이 최종심사를 하여 선발하는 정성평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매년 합격의 기준이 뛰어나며 합격자를 놓고 수험생들 사이에 뒷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객관성 부재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학벌의 카르텔 문제입니다. 한 예로 '2012년 법학전문대학원 24개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SKY대'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

정 상 훈

- 월간 『考試界』 발행인 겸 편집인
- 도서출판 고시계사&멘틀 대표



대 출신이 전체 입학자의 절반에 가까운 47.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입학자의 51.1%가 수도권 고교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입학자 10명 중 4명은 서울지역 고교 출신이었고, 그 4명 중 1명은 이른바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셋째는 로스쿨 졸업생들의 취업을 편중성문제입니다. 졸업생 취업을 또한 상위 5개 대학 모두가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서울지역 법학전문대학원 평균 취업률(졸업자 기준, 89.1%)이 서울 외 지역 평균 취업률(졸업자 기준, 74.5%)보다 14.6%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실제로 대형로펌에 취업한 로스쿨 출신은 소위 명문 SKY대의 로스쿨졸업생이 대부분입니다. 넷째로는 현재의 로스쿨제도의 고비용구조는 평균적인 대한민국의 국민이 넘기 어려운 경제적 진입장벽으로써 최근 문제되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로스쿨 제도의 혼란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는 사법시험제도의 병행적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회균등의 원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정부는 또한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타파하자며 정부가 46년간 시행하였던 외무고시제도를 2013년 제47기를 마지막으로 하여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외교관선발제도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은 후보자 43명에 1년동안 국비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이 끝

나면 성적 하위 4명만을 탈락시키고 39명을 5급 외교관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용률이 90%에 달해 외교관후보자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또한 특별전형의 경우는 외국어와 해외체류경험이 중요한 만큼 강남이나 부유층 출신이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험제도도 로스쿨처럼 부의 대물림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고시제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사람은 공직에 진출하여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사회에 무한경쟁을 일으키고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은 인재들에게 임용의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경직된 공직사회를 유연하게 바꾸고 다양한 인재들을 활용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과정이 충분히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졸속행정이 될 수 있고, 높은 스펙이나 학벌을 갖춘 기득권층의 고위직 진출을 돕는 결과만 양산하여 결국에는 현대판 음서제도가 되어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가 시행하고 채용하는 방식은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보장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개방과 경쟁중심의 선발시스템으로 선발하는 제도가 타당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0여년간 창간 이래 애독자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를 이끌어갈 동량을 키워내는데 일조하겠다는 당사의 설립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해보며, 앞으로도 사법시험,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시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갑오년 새해에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말과 같이 큰 꿈을 향해 뛰어 목적을 달성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으며, 맥내에 건강과 평강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